

민간공원 특례사업 교육부지 수용 논란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육부지(교지)가 강제 수용될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민간공원특례 1단계 사업 4개 공원에 대한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4개 업체를 선정했다.

해당 부지는 마북, 송암, 수랑, 봉산공원이며, 시는 공원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 접근성 등 기준을 근거로 세부 협상을 벌인 뒤 2019년 중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제 수용되는 송암공원 사업부지에 광주대학교 교지가 포함되면서 대학 측이 반발하고 있다.

송암공원 부지에 광주대 교지 5만1639㎡ 포함 대학 측 “대체 부지 확보 등 대안 마련” 요구 광주시 “향후 사업시행사와 논의해야할 문제”

송암공원 사업면적은 52만4927㎡로 이 중 10% 가량에 해당하는 5만1639㎡가 광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심학원의 교지다.

교지가 강제 수용되면 광주대의 교지 확보 비율이 교육부 기준 면적을 밑돌아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지 확보율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한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교육부에서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현재 광주대의 교지는 25만941

㎡로 확보율 기준 대비 115.6%이지만 광주시 특례사업에 강제 수용되면 91.9%로 낮아진다.

대학 교지를 처분하는 것은 교육부의 승인사항이다. 교육부는 교지를 처분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체용지 확보를 위한 일정과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대는 지난해부터 광주시에 사업부지 수용 제의와 부지를 수용할 경우 그에 따른 대체 부지 확보

를 요청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문제라며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광주대 관계자는 “학생 교육을 위한 교지를 공인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 수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며 “부득이하게 추진할 경우 대학 운영을 위한 교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대라고 해서 특별히 제척해 줄 문제가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정비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문중 땅이나 개인 사유지 등이 많은 데 대학이라고 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소유주들의 제척 신청이 쇄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무안서 돈사불...돼지 30마리 죽어

14일 오전 7시17분께 무안군 청계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1시간반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1개동 215㎡(추정)가 모두 타고 어미돼지 30마리가 죽었다.

출근길에 불길을 목격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돈사 주인에게 신고한 뒤 소화기 6개로 진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돈사 내 4개실 중 가장 안쪽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폭설 속 실종 70대 치매노인 숨진 채 발견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폭설 속 집을 나섰다 실종된지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30분께 강진군 마량면 모저수지 수로에서 A(79·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가족은 A씨가 평소 찾던 사찰과 친인척 묘지 주변을 수색하던 중 숨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은 지난 10일 오후 5시에 집을 나서 A씨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가 신고됐다. A씨는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설에 길을 잃은 A씨가 수로에 빠져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진에는 지난 9일부터 눈이 내려 최대 15.2cm가 쌓였다.

강진=최제영 기자

동창생 속여 수역 가로챈 40대 입건

공장 신축 자금이 필요한 중학교 동창에게 접근해 국가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수역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4일 A(4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4개월 동안 중학교 동창인 B(41)씨에게 접근 “지인을 통해 정부 차관급 인사들에게 부탁해 국가정책자금 20여억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실업 금융조사단 민간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B씨가 공장신축 자금이 필요한 것을 알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대생들 속여 대출금 가로챈 일당 검거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정한 SNS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대생들을 유인한 이후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도록 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2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21)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해 9~10월 페이스북에 ‘여성만 가능, 고수익 알바 당일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20·여)씨 등 여대생 2명을 유인했다.

이들은 C씨 등에게 “일시적 회사자금 경색으로 개인 대출을 받아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대출금은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속인 이후 인터넷 대출을 받도록 해 대출금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어린이집 교사 아동 7명 학대...경찰 수사

대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7명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A(5)양을 낯잡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과 같은 반 아동 6명도 지난해 12월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

광주경찰청, 5대 범죄 검거율 전국 1위 차지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5대 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검거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지역 5대 범죄 발생은 2016년 1만5416건에서 2017년 1만3951건으로 9.5% 감소했다.

5대 범죄 검거율은 2016년(82.1%)에 비해 2017년(84.7%)에 2.6%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5대 범죄 검거율(78.8%)과 비교하면 5.9% 높았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최근 2년 연속 살인·강도·성폭력 사건을 모두 해결했으며, 지난해 절도사건 검거율(72.5%)도 전국 평균(61.8%)을 크게 웃돌았다.

폭력사건 검거율도 90.3%를 기록, 전국 평균(87.9%)보다 높았다.

광주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형사들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힘쓴 점, 5대 범죄 사건 분석 회의를 범죄 정보를 공유한 점,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 대처 방침에 따라 이같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문귀희 강력계장은 “강·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산천어 맨손잡기 물장구로 몸푸는 참가자들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 개막 둘째 주말인 14일 오후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산천어 맨손잡기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이 물장구를 치고 있다.

전남대 가야금병창 교수 공채 불공정 논란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응모했던 지원자가 최종 면접을 앞두고 대학 측이 심사 불공정을 이유로 재심사에 들어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예술대학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교수 공모 공고를 내고 1차 서류심사와 전공심사, 2차 연주심사와 공개강의,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인 A씨는 1차와 2차 심사를 통과한 뒤 단독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대학 측은 면접 하루 전날인 지난 3일 구체적인 설명 없이 A씨에게 면접심사가 연기됐다고 통보했다.

이후 대학 측 교수 공채 공정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된 내용을 검토한 뒤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관리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A씨를 상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심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이의 신청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심사 평가표와 서술 내용을 보고 불공정하다고 결정했다”며 “A씨는

재심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대학 측이 이의 신청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면접심사를 중단하고 재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최고 점수를 받아 단독 면접대상자로 선정됐는데도 대학 측이 특정인의 이의 신청만을 받아들인 채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고 무효화했다”며 “특정인을 합격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원에 전임교원 공개채용 가야금 병창 분야 면접 중단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KFS 한국농어촌공사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구묘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구묘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